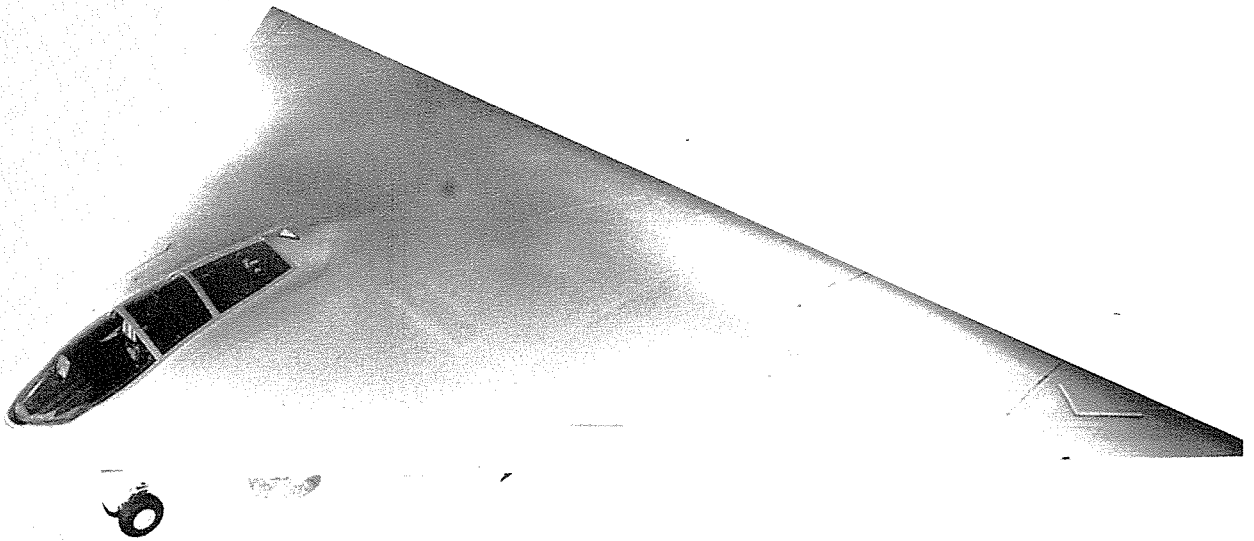


#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새제품 새기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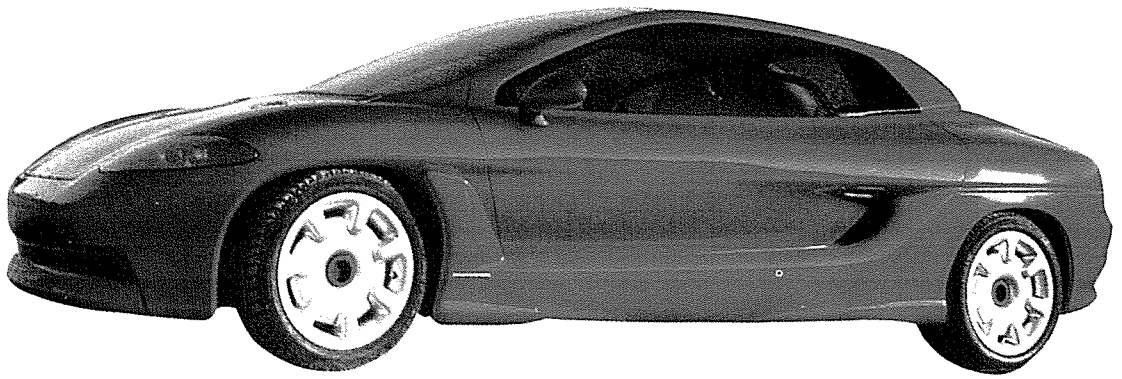
## 첨단과학의 결실 우리생활 이렇게 달라진다

새제품·새기술은  
첨단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 
부단한 연구결과의 소산이다.  
본 난은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 
새제품·새기술에 관한 정보를  
입수하여 게재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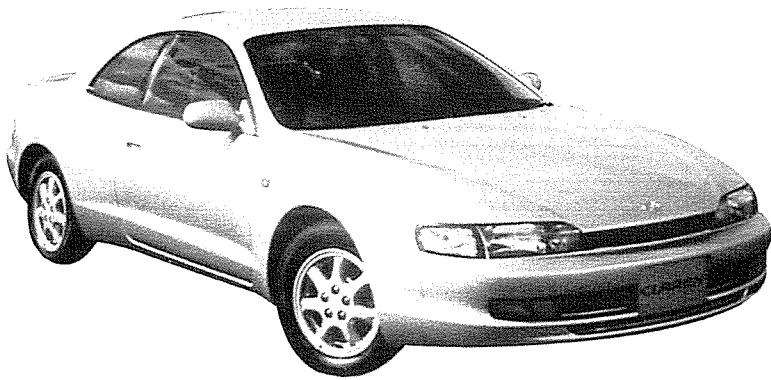
### 사산(死産)한 스텔스

그 모양은 조심스레 비밀에 붙여졌고 급등하는 제작비용과 늦어진 개발계획에 대해 쉬쉬해 왔다. 그러자 전 미국방장관 디크 체니는 이런 발뻠에 대해 격노하고 이 사업을 중단시켰다. 그 결과 미해군 항공모함 기지의 A-12 스텔스 공격기의 완전한 크기의 모형기는 텍사스주 포트우어스에 있는 헤리티지항공협회에 기증되어 새로 건설될 박물관에서 전시될 계획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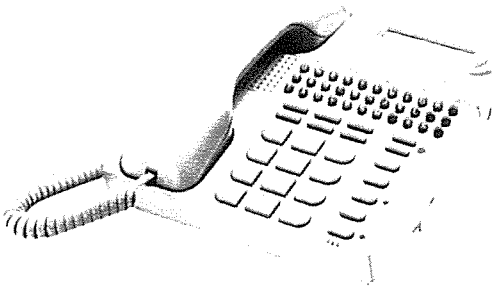
### 상상의 나라를 편다

포르쉐 911 사시를 20인치 늘려서 포르쉐의 3.6 리터, 277마력의 차에 첨가하고 누시오 베르톤의 이탈리아 설계 스튜디오로 넘겼다. 그 결과 베르톤 카리스마가 탄생했다. 포르쉐사측은 입을 다물고 있으나 소식통은 카리스마가 4좌석의 포르쉐로서 생산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비치고 있다.



### 최신형 쿠페

도요타자동차사가 내놓은 '커런트'는 7,000rpm에서 180마력을 출력하는 2리터의 쌍캠 엔진을 특징으로 한다. 옵션으로 4바퀴 안티로크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구할 수 있다. 스포티한 2문짜의 이 중형차는 일본에서 판매중인데 가격은 1만7천달러부터 시작된다.



### 편리한 자동전화

전화번호부를 전화기속에 내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? '폰메이트 8775'는 응답기계와 전화기와 함께 100명의 이름을 가진 전자전화부를 한데 묶은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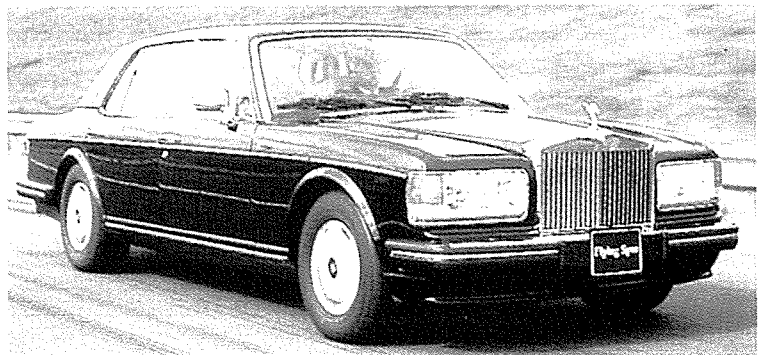
이름은 알파벳순으로 저장하고 첫번째 몇글자만 입력하면 검색할 수 있다. 일단 이름을 선택하면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걸어 준다. 값은 1백70달러.

제작사:PhoneMate, Box 2914, Torrance CA 90509, U. S. A.

### 탁월한 성능과 화려한 모습

롤스 로이스사는 90년 역사상 이 기업이 제작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승용차라고 주장하고 있다. 6.75 리터 터보차지의 V8엔진을 장착한 '플라잉 스피어'는 7초이 내에 속력을 0에서 96km/시까지 가속할 수 있다.

대당 22만5천달러인 이 차는 1994년 북미시장을 위해서 35대만을 제작하는데 롤스사는 차가 소름에 닿기 전에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.



## 지상통신선용 무선기

이동전화를 갖고 있고 벽콘센트는 있지만 전화선이 없는 경우 팩스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? 그 해결책은 RJ-11 잭 (플러그를 꽂기 위한 플러그 구멍)을 가진 재충전장치인 '셀도크'다.

이 잭을 사용하면 이용자는 팩스기계와 같은 지상선제품과 함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또 이동전화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음성통신용 스피커스피커폰(스피커와 마이크폰이 일체화된 송수화장치)을 꾸며 넣었다. 값은 3백99달러.

제작사: Telular, 6410 Poplar Ave., Ste. 140, Memphis TN 38119, U.S.A.



## 그림없는 텔레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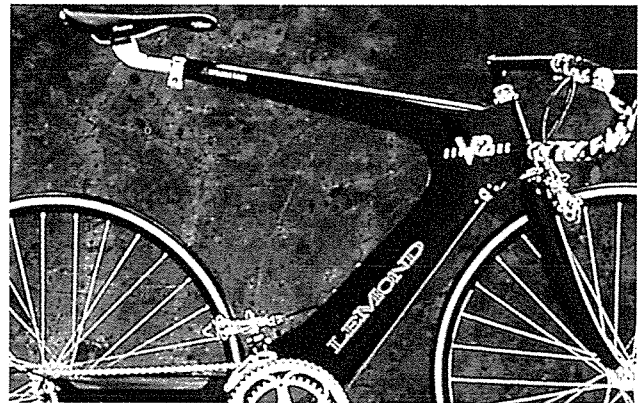
조깅을 하거나 차를 타고 귀가하면서 좋아하는 멜로드라마를 듣고 싶을 때 '텔레메이트'는 이런 욕망을 충족시킨다. 무선의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 장치는 VHF와 UHF TV방송국의 오디오방송을 수신하여 이 신호를 어떤 주파를 통해서도 3.6m이내의 FM라디오로 보내 준다. 값은 60달러.

제작사: Econologic, 2370 Watson Court, Palo Alto CA 94303, U.S.A.



## 오지를 달리는 바이크

'스즈키 DR 하이랜더'는 긴 비포장도로 주행용으로 과외의 연료, 물 그리고 장비의 저장을 특징으로 하는 컨셉트 모터사이클이다. 조화된 배기시스템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. 한쌍의 광섬유선이 앞바퀴 양쪽으로 헤드램프의 빛을 유도하여 회전할 때 밝혀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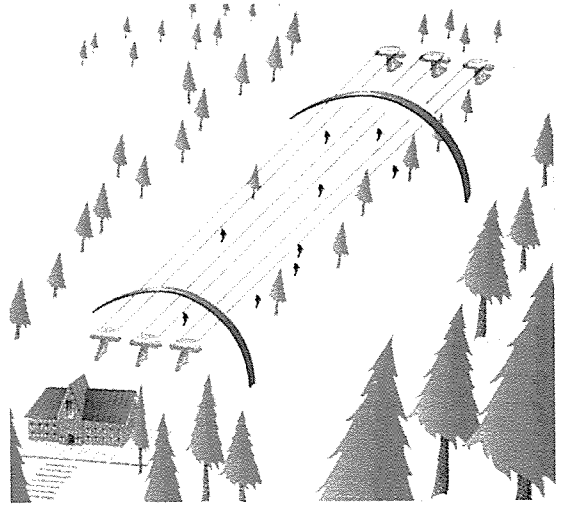
## 부메랑 자전거

세번씩이나 전 프랑스 자전거경주대회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그레그 르몽사는 일본의 미츠비시 레이언사의 엔지니어들과 공동으로 비싼 힘과 융통성 그리고 경량의 부메랑모양을 한 자전거 프레임을 설계했다. 르몽 바이시클사에 따르면 V2 부메랑은 처음으로 완전히 통합된 탄소섬유설계로 제작된 이 프레임의 무게는 1.587kg이며 재래식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프레임보다 바람이 끄는 힘을 덜 받는다. 프레임과 포크의 값은 2천1백달러.



### 강력한 절단기

주말에 우거진 생울타리를 손질하려면 걱정부터 앞선다. 그러나 '파워 레버 프로 프루너'를 사용하면 일을 크게 돕는다. 이 장치는 3지축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힘을 70%나 더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. 이 공구의 피스톨식 손잡이는 팔목을 구부리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어 팔목과 팔의 앞쪽의 피로를 줄인다. 또 손잡이는 나무가지속에서 손을 보호해 준다. 1995년 봄에 출하할 예정인 이 공구의 값은 36달러로 어렵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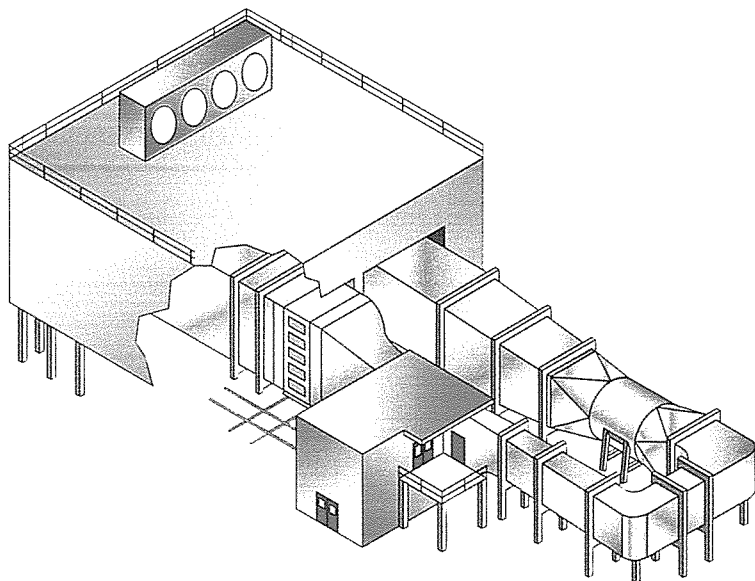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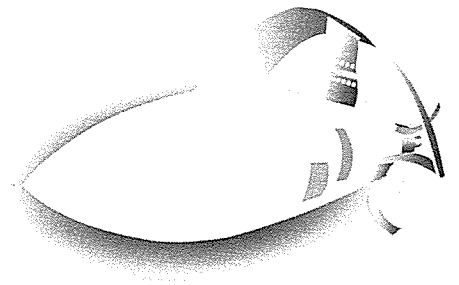


### 세계 최대의 냉동시설

인공눈제작회사인 영국의 에이서 스노우팩사와 한국의 스키리조트 개발회사인 효산은 1995년 말 목표로 세계 최대의 육내 스키 리조트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. 6개의 체인중 최초인 '스키돔'은 약 500m길이가 될 것인데 120m폭의 지붕을 갖는다. 눈은 무더운 한국 여름철에도 섭씨 영하 1도의 온도를 유지한다.

### 더 멀리, 더 빨리

미래의 미사일은 미국 휴즈사가 개발한 부력 강화날개덕에 더 멀리 날아 갈 수 있게 되었다. 미사일 주변을 둘러싼 이 날개는 항력(전진을 방해하는 힘)을 줄이고 속도를 끌어 올린다. 그러나 가용시기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다.



### 얼음을 만드는 풍동

미국 시애틀소재 보잉사의 전천후 풍동(風洞)용의 새로운 얼음제조장비는 친비나 또는 눈송이를 비행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만든다. 이 터널은 이동용 살수장치와 냉동장비로 구성되어 있다. 이 터널은 현재의 비행기와 컨셉트 모델에 얼음이 형성할 때의 영향을 조사하고 완전한 크기의 해빙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다.